



hananimuibetop.org

하나님의 법: 부록 1: 613개 계명이라는 신화

613개 계명이라는 신화와 하나님의 참된 계명들

흔한 오해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글을 게시할 때마다, 일부 독자들은 불편해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럼 613개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이네요!”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숫자—성경에서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가 어디서 유래했는지조차 모르며, 그 실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화의 기원 설명

질문과 답변 형식

이 연구에서는 이 신화의 기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그분의 아들에게 보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참된 계명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질문: 이른바 613개 계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613개 계명(613 미츠보트)은 서기 12세기에 랍비들이 유대교 실천자들을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요 저자는 스페인 출신의 랍비이자 철학자인 [모세 마이모니데스](#)(1135-1204, 람밤)였습니다.

질문: 성경에는 정말로 613개 계명이 존재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계명들은 소수이며 순종하기에 단순합니다. 악마는 이 신화를 영감을 주어, 인류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오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에덴동산 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질문: 61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요?

답변: 이 숫자는 랍비 전통과 히브리어 숫자 해석법(게마트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방법은 알파벳 각각에 숫자 값을 부여하는데, 한 전통에 따르면, **tzitzit** (술, 끈, 장식)이라는 단어(민수기 15:37-39 참조)의 문자 합이 600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을 추가하여 613이 되고, 이것이 토라(성경 처음 다섯 권)에 있는 계명의 수와 일치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참고로 **tzitzit** 사용은 실제로 순종해야 할 참된 계명 중 하나이지만, 이를 613개 계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장로들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마태복음 15:1-20 참조). [\[tzitzit에 관한 연구 보기\]](#)

질문: 술(tzitzit, tassels)에서 613개 계명을 어떻게 만들어냈나요?

답변: 매우 큰 무리와 창의력을 동원하여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계명들을 여러 세부 항목으로 쪼개어 수를 부풀렸고, 제사장, 성전, 농업, 가축, 절기 등과 관련된 규정들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질문: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참된 계명들은 무엇인가요?

답변: 십계명을 포함하여 몇 가지 다른 계명들이 있으며, 모두 순종하기에 단순합니다. 일부는 남성이나 여성에게, 일부는 공동체 전체에게, 또 일부는 농부나 가축 사육자 등 특정 집단에 적용됩니다. 많은 계명들은 기독교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의 후손에게만 해당되거나, 서기 70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실한 자녀들에게 준비하라고 부르고 계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예외 없이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만 데려가실 것입니다.



십계명 외에도 순종하기 쉬운 몇 가지 다른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본보기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따르십시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회중에게는 너희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동일한 율법이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며,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같은 율법과 같은 규례가 있을 것이다”(민수기 15:15-16).

여기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합류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비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한복음 4:22).

아래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 제자들이 신실하게 따랐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남성을 위한 계명:

- **머리카락과 수염:** “너희는 머리 둘레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라”(레위기 19:27). [\[기독교인의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연구 보기\]](#)
- **Tzitzit (술, 끈, 장식):**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게 하여... 그것을 보고 여호와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민수기 15:37-39). [\[tzitzit에 관한 연구 보기\]](#)
- **할례:** “생후 여드레가 된 남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본토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된다”(창세기 17:12). [\[기독교인과 할례에 관한 연구 보기\]](#)

여성을 위한 계명:

- **월경 기간 중 성관계 금지:** “누구든지 여인의 불결함 중에 그녀의 하체를 드러내면... 둘 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레위기 20:18).

공동체를 위한 계명:

-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다”(출애굽기 20:8-11). [\[안식일에 관한 연구 보기\]](#)

- **금지된 음식:**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하다…”(레위기 11:1-46). [[기독교인을 위한 금지된 고기에 관한 연구 보기](#)]

질문: 바울은 그의 편지(서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계명을 순종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계명들을 폐지하셨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의 글을 이용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본다면 경악할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법에서 한 글자라도 변경할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다소(타르수스) 출신 인물이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에 대한 언급은 구약(타나크) 예언자들이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된 인물은 단 세 명뿐입니다: 유다(시편 41:9), 세레 요한(이사야 40:3),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사야 53:9)입니다. 바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미 예언자들과 예수님에 의해 계시된 내용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존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무언가를 바꾸었다고 믿는 기독교인은, 이해를 재조정하여 예언자들과 예수님께 일치시켜야 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바울의 글을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조화시킬 수 없다면, 인간의 글을 근거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글을 옆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이런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무시한 죄가 없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변명할 사람을 재판장이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요한계시록 14:12).

질문: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에 변화를 주시거나 폐지하신 것은 아닙니까?

답변: 그런 생각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이미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요한복음 14:26).

성령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예언자들이 이미 가르친 것과 다른 새로운 교리를 가져오신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미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εντολή (entolē)* 명령, 규칙, 지시]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다”(요한복음 12:49-50).

계시의 흐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메시아 이후에 새로운 주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어떤 인간에 대한 예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어진 계시는 오직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과 세상 끝 사이에 새로운 교리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연속적이고 영원하며, 우리는 이 계명들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자들은 아들에게 보내져 구속받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기쁘시게 하지 못했으며, 아들에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요한복음 6:65).